

담양군, 오늘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42억 원 지급

농가당 담양사랑상품권 60만원...지역경제 활력 제고

1년치 상반기에 일괄 지급...신분증 지참 후 현장수령

담양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28일부터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전남형 농어민 공

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발전 을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로 당초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상반기에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신청자 7,744명중 737명은

주소지 미거주 및 농어업 경영체 주소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총 7,007농가에 60만 원씩 총 42억 원을 담양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코로나19 예방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농협에서 마을을 방문해 5월 중 집중 배부할 계획이며, 본

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현장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마을 순회기간 중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지역 농협에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된 담양사랑상품권은 전통 시장, 식당, 미용실, 주유소 등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 등 위축

된 골목상권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민생경제에 안정을 조기에 도모할 수 있을 기대한다"며 "다양하고 빠른 경기 부양책으로 군민 생활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 왕우렁이 공급...친환경 쌀 재배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곡성군이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 어울마당에서 2020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협의회를 개최했다. 벼 친환경재배단지에 왕우렁이 적기 공급을 위해 열린 이날 협의

회에는 지역농협 업무담당자, 우렁이 생산업체, 읍면직원 등 2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각 기관별 역할과 왕우렁이 공급 후 월 동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왕우렁이는 벼 친환경 농사에서 제초제 대용으로 사용한다. 곡성군은 왕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을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친환경농업단지와 일반재배단지 3,146ha에 왕우렁이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논지 곳곳에서 투구새우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에게는 벼농사 제초비용을 절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군 관계자는 "왕우렁이 공급 시기가 벼농사 제초작업 성공 여부를 결정하므로 논 씨레질 즉시 우렁이를 투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생산자협회에 "논 여건에 따라 필요한 우렁이 규격이 각각 다르므로 농가에서 희망하는 규격(치패, 중패)의 우렁이를 차질 없이 공급해달라"고 강조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구례자연드림파크, Non-GMO 콩나물 생산 공방 준공

친환경 콩나물 숙주 생산 시설 갖춰

구례군은 친환경식품 클러스터인 구례자연드림파크에 Non-GMO 친환경 콩나물 생산 공방인 '알콩달콩 공방'이 건립되어 24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알콩달콩 공방은 3천㎡ 대지에 3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되었다. Non-GMO 친환경 콩나물, 숙주나물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1일 2.2톤의 콩나물 등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지난해 16

농가와 10ha의 콩을 계약 재배하여 19톤을 수매하였다. 올해는 알콩달콩 공방이 운영됨에 따라 70농가와 50ha를 계약 재배할 계획이다. 매년 계약 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준공식은 김순호 구례군수, 김송식 구례군의회 의장, 사회적협동조합 파머스쿨 정일성 회장, ㈜알콩달콩 이강철 대표이사 등 최소 인원

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농업회사법인 ㈜알콩달콩 이강철 대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착한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알콩달콩 공방에서 필요한 연간 200톤의 콩류를 지역에서 수급해 상생협력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친환경 콩은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소득 작목으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알콩달콩 공방이 지역과 상생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군, 병·의원에서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가능

생후 8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화순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의 병·의원에서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후 8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화순군보건소뿐 아니라 위탁 의료기관인 ▲푸른소아청소년과의원 ▲이동규소아과의원에서 할 수 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올해 1월부터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

행해 왔으나, 전라남도 지침이 변경되면서 지역의 위탁 병·의원에서도 접종할 수 있게 됐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예방접종이다. 로타바이러스 감염병은 5세 미만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감염되면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위장관염 증상이 나타난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농업인 교육 다음달 개강

광양농업의 미래 인재 육성 위해 마련

광양시는 2020년 기초영농정착기술교육(귀농·귀촌 과정 6기)과 제23기 광양시 친환경농업대학'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광양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귀농인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기초영농정착기술교육 귀농·귀촌 과정은 다음달 7일부터 10월 15일 까지 매주 화·목요일 27회 106시간 운영되고, 친환경농업대학 유기농업 과정은 5월 11일부터 11월 09일 까지 매주 월요일 27회, 109시간으로 진행된다.

귀농·귀촌 과정은 귀농·귀촌을 선택한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정보 습득, 영농기술교육, 현장실습 등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성공한 다양한 농가를 방문하여 자신에게 맞는 귀농·귀촌을 설정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유기농업 과정은 기초 농업지식인 토양관리와 작물재배 등의 이론과 실기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을 수료하면 유기농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정옥자 기술보급과장은 "광양시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의 장으로써 광양친환경농업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교육 출입구에서 체온 체크와 교육생 마스크 착용, 2M 안전거리 두기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한 가운데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영농정착기술교육 귀농·귀촌 교육과정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광양시농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고흥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확장 이전 사업 본격화

고흥군은 최근 고흥군청에 있던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도시재생 주사업대상지인 고흥읍 구도심(고흥읍 원동남계길 42)으로 새롭게 단장해 이전하였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

정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중간 지원 기구로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를 강화해 주민이 뉴딜사업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이다.

앞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의 주체인 주민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자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군 YEONGAM-GUN

평일 밤 한
일 상 속
남다른 여행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러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